



2026. 9. 15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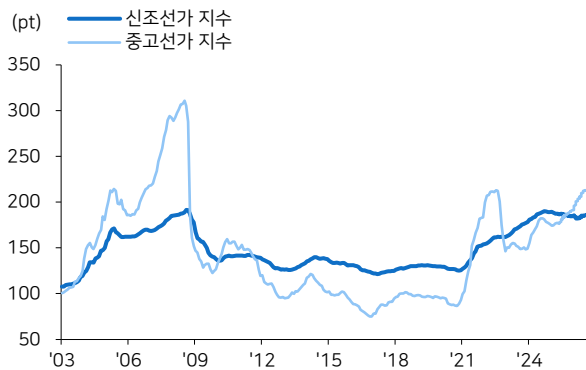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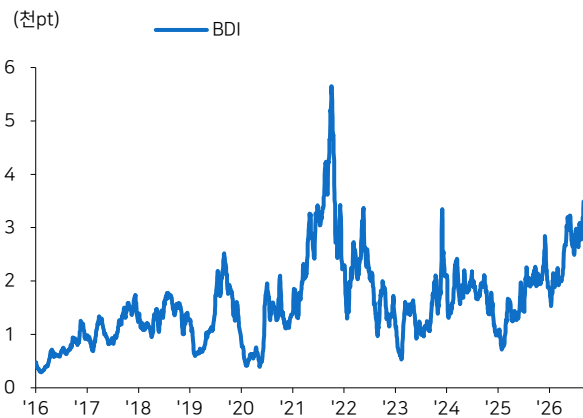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0.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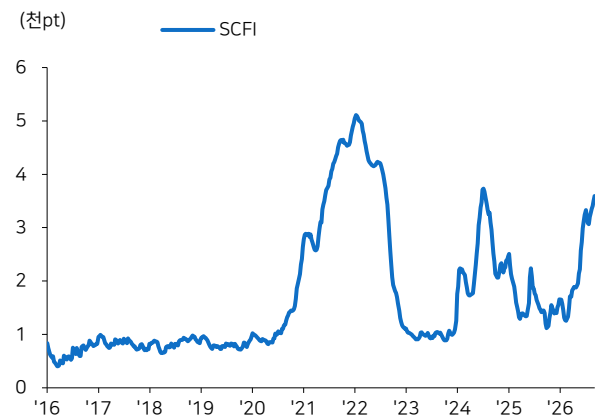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507.0p (-1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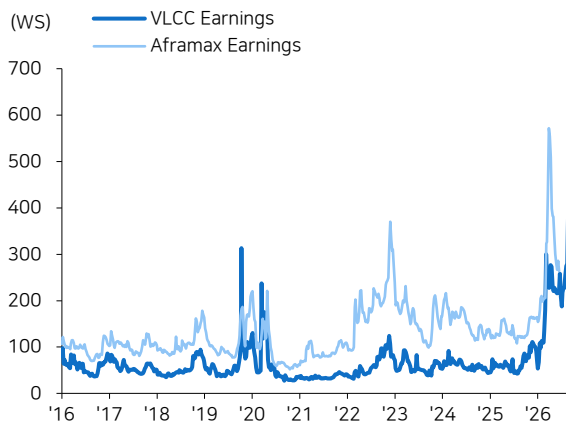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62.2 (+72.1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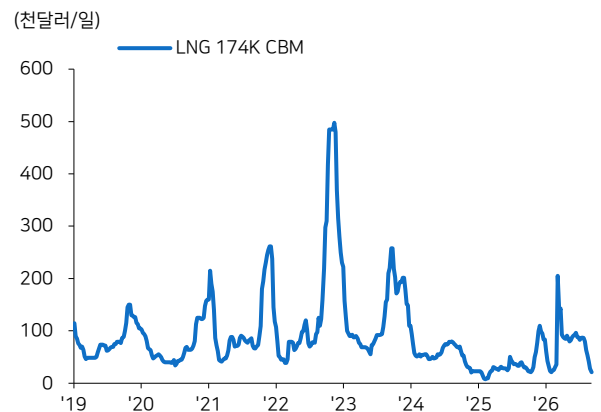
VLCC Spot Rate

677.4WS (+235.5p WoW)



LNG Spot 운임

27.3천달러 (+6.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Dynagas named as owner behind fresh batch of upsized LNG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92pcra>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사와 1조 4,000억원 규모 LNG운반선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업계에서는 발주처를 Dynagas로 보고 있다고 전해짐. 선박은 200,000㎥급 LNG운반선으로 척당 약 2.63억 달러라고 공시됐으며, 2029년 9월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짐. Dynagas가 기존 200,000㎥급 LNG선을 모두 HD현대중공업에 발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으로 발주처를 변경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됨.

'180도 돌변' 오스탈 창립자 "한화, 美 사업부 인수 지지"...재정 악화 현실 인정 (더구루)

<https://zrr.kr/VtgW5d>

한화의 오스탈 USA 인수 추진이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오스탈 창립자 John Rothwell이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매각을 지지한다고 보도됨. Rothwell은 오스탈 USA의 2026 회계연도 적자 전환을 계기로 사업 지속보다 매각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며, 한화를 미국 사업의 적합한 인수 후보로 평가했다고 알려짐. 창립자의 지지 확보로 한화는 미국 군함 생산 거점 확대와 오스탈 USA 인수 과정에서 규제 및 여론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전해짐.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일 부산서 개최...전작권 전환·함정 MRO 논의 (뉴스 1)

<https://zrr.kr/FT5pg9>

한미 국방부가 16~18일 부산에서 제2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 건조 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이번 회의에서는 MASGA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군함 MRO와 건조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미국 측 관계자들은 방한 기간 울산·거제 조선소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짐. 또한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최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전투함·급유함 관련 정보요청(RFI)을 발송한 만큼, 향후 미국 군함 발주를 위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전해짐.

HD 현대중공업, 스텔스 도로 기업과 유·무인 함정 개발 맞손 (연합뉴스)

<https://zrr.kr/0q206c>

HD현대중공업이 스텔스 도로 전문기업 ETL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레이더 탐지 신호를 줄이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유·무인 함정을 공동 개발한다고 전해짐. 이번 협력은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설계·개발 역량과 ETL의 첨단 스텔스 도로 기술을 결합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함정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알려짐.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중소 방산기업의 혁신 기술을 함정에 적극 적용해 국내외 함정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특수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도됨.

한화오션, 60MW 급 부유식 데이터센터 첫 공개 (한스경제)

<https://zrr.kr/ol4xXD>

한화오션이 가스텍 2026에서 6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모델을 처음 공개하며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전해짐. FDC는 해상 자체 발전과 해수 냉각 시스템,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 전력·부지·냉각 문제를 해결하는 해상형 데이터센터로, 미국선급(ABS)으로부터 개념설계 기본인증(AIP)을 획득하며 기술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알려짐. 이번 전시를 통해 한화오션은 그룹의 조선·에너지·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FDC 사업 모델과 함께 174,000㎥급 무탄소 LNG 운반선도 공개하며 차세대 해양 인프라 기술을 선보일 예정으로 보도됨.

Container ship giant HMM to bet big on tankers, gas carriers and offshore (TradeWinds)

<https://zrr.kr/pbFLqW>

HMM이 벌크 부문을 중심으로 탱커, 가스선, 해양플랜트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85,000억원 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회사는 2030년까지 벌크선대를 36척에서 110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VLCC·MR탱커와 LPG·LNG 운반선, PCTC, 해상풍력 설치선(WTIV) 등 저탄소 에너지 운송 분야를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할 방침으로 알려짐. 다만 HMM은 고가의 선대 인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전략적 M&A와 신조 발주를 병행해 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